

—마치 쇼핑하는 소비자 심리로 종교를 대하는 사람들—이 전적으로 혼신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 변화되도록 해야 한다. 교회는 마땅히 아직도 영적 대답을 갈구하는 40%의 베이비 봄 세대에게, 호소력 있는 사역으로 새롭게 접근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계발해야 한다. 교회는 지역적으로 적응할 뿐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문화에도 적응해야 한다. 그러나,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, 우리의 소명의 일부는 제자를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이다. 책임, 혼신, 충성, 그리고 건강한 삶이나 대인관계 및 자기 평가 등의 주제와 관련한 봉사 등의 이슈들이 강조되어야 한다.

베이비 봄 세대들은 또한 성장해야 한다. 나 자신 스스로 철저한 베이비 봄 세대로서 볼 때, 이들이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특징적인 성격은 하나님 나라와 직접적인 갈등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.

전형적인 베이비 봄 세대는 이렇게 말한다. “나는 내 필요에 적합한 것만 선택할 것이고, 내게 도움이 될 때까지만 계속할 것이다.” 하지만,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.—“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.” 이들 세대는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지만, 예수께서는 “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”고 가르치셨다. 또한 이들은 절대적인 진리는 없으며 오직 개인적인 선택만 있을 뿐이라고 말하지만, 예수께서는 “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”고 말씀하신다.

우리들 베이비 봄 세대는 자신들의 방식대로 하는데 익숙해져 있다.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요구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음을 배워나가는 것이 성장과정이다. 이러한 교훈에 대해 어떤 사회적 이념들도 가르쳐주지 않았다. 오직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결코 찾아볼 수 없다.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자신의 이미지에만 풀입해서는 안됨을 보여준다.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, 나이에 상관없이 존재양식이 바뀌어야만 하는 것이다.

교회문제연구소 간행자

21세기 교회와 목회현장 개혁주의 교회와 생활 제10집

인쇄: 1993년 12월 24일

발행: 1993년 12월 28일

발행인: 최덕성

발행처: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(부설)교회문제연구소
602-030 부산시 서구 암남동 34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

교회문제연구소

TEL. (051) 256-3181~2(교), 255-9860(직)

FAX. (051) 257-5133
